

# “한반도 평화 기대 높다...먹고사는 문제도 잘 풀어달라”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한 추석민심

광주·전남 지역민의 법상 위에 오른 추석 민심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에 집중됐다. 지난 5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바라본 추석 민심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남북 협력과 청년 일자리 문제, 집값 등 부동산 등이었다.

27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남북 정상이나라한 백두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며 한반도 평화 시대를 기대하게 됐다”는 지역민의 바람을 전했다.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광주 유일의 여당 국회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이날 “추석 민심의 주요 이슈는 단연 평양정상회담이었다”며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최대 화두로 꼽았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최초의 북한내 연설, 두 정상의 백두산 천지 방문, 퍼스트레이디 동반 만남 등 술한 화제거리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됐고, 한반도의 평화와 삶 곳곳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희망도 컸다”고 전했다. 반면 송 의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도 “전남지역에서도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은 어느 곳 못지 않았다”며 “북핵 문제가 풀려야 경제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전망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농도 전남의 현안인 쌀 목표 가격 결정에 대한 걱정, 기상 이상에 대비한 피해보상 확대 요구,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바다 민심을 전했다.

야당 의원들도 한반도 평화를 이끈 추석 연휴 최대 이슈로 꼽았지만 여당 의원들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목소리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최대 이슈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 일자리·부동산 급등엔 쓴소리

### 좌초 위기 광주형일자리 걱정도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의원은 “남북문제는 협조하되 확실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많았다”며 “특히 지방도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경제에 대한 주문이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중철(광산구갑) 의원은 “남북 관계 긴장 완화와 평화 무드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민 상당수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방적 러브콜보다는 국민들의 공감속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지역민은 이구동성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기회복을 위한 협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전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 경협을 통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시민도 있었지만, 단순히 ‘평화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식만으로는 경제회복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는 시민도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북선동과 수완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급등한 집값 문제를 걱정하는 민심의 분위기도 전했다. 장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연이은 정부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주의 일부 지역 집값이 전정부지대로 뛰었다”며 “지역별 상황과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지부진하거나 사실상 무산된 일부 지역 현안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여론도 추석 민심에서 드러났다.



민선 7기 광주시가 광주송정역 주변 개발, 광주군공항 이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등 표류해오던 지역 핵심 현안의 해법을 올 연말까지 제시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광주송정역 전경.

같은 당 최경환(북구)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추진방식에 대해 노동계에서 화를 많이 내고 있다”며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는 모습에 지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와 민생 문제는 여전히 높에 빠져 있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 자식 취직 걱정이 여전한 부모님들, 집값 폭등을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박탈감 등 냉철한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 광주시 핵심현안 연말까지 마무리

### 군공항, 전남 이전 급물살

### 어등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광주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민간공원 개발 보존 길 열려 속도

민선 7기 광주시가 표류해오던 지역 핵심 현안의 해법을 올 연말까지 제시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의 핵심 현안은 광주군공항 이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공원 특례 개발, 광주송정역 개발, 광주역 활성화 등이다.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은 이용섭 시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 공항의 전남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 사·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10년 이상 담보상태에 놓여있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평가심의위원회 및 시민평가를 거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호반을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 체결로 민간사업자 지위를 갖는다.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어등산은 2023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은 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를 통과해 교통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광주송정역은 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옛 유흥구역이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난개발이 확산돼 체계적인 재생 및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 사업이 실현되면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와 융복합(산업+업무+주거+상업)지구를 연결하는 교통중심지로 기능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역 일원은 ‘광주 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 벨리’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18 도시재생뉴딜 공모’ 중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도시재생 신포탄을 쏘아올렸다. 사업은 내년 부터 오는 2024년까지 광주역 주변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의 문화산업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 유흥부지를 활용해 복합 개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도심기능 쇠퇴가 심각한 광주역 일대를 미래형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끄는 원도심 문화경관으로 조성하게 된다.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원지구 해제 위기에 몰렸던 공원들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보존의 길이 열렸다. 지난 16일 2단계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중앙1 ▲중앙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등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해 15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시민심사단을 평가에 참여시켜 10월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최종 평가해 공인별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은영의 ‘그림 생각’

(238)백두산

십 수 년 전 중국여행길에 나섰던 백두산행은 초입에서부터 악천후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백두산 천지는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 더욱 실감해본다.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은 남북 두 정상의 모습은 가지 못한 백두산 천지에 대한 미련과 우리들 또한 중국이 아니라 우리 땅을 밟고 그곳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한다. 서예가 학정 이돈홍(1946~ )의 그림 ‘천지’(2012년 작)는 그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던 파란 하늘 아래 하늘보다 더 맑고 푸른 백두산 천지의 절경을 떠오르게 한다. 1990년 처음 백두산을 방문한 이래 지금까지 다

## 태초에 하늘이 열린 듯...장엄한 천지의 감동

섯 차례 천지를 만났던 학정은 그 때의 강렬한 감흥과 감동을 일필휘지의 필력으로 표현했다.

“처음 백두산 천지를 찾았을 때 하늘에 하얀 달이 떠있었고 그 달이 맑은 천지에 비추어서 가히 태초에 하늘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면서 “중국 쪽에서 오면 백두산이라 위치는 달랐지만 사무치게 장엄하고 아름다웠던 당시의 느낌을 뉴스에서 다시 만나 반가웠다”고 전했다.

일찍이 송곡 안규동(1907-1987)에게 글씨를 사사했던 학정은 스승의 권유로 남종화의 대가 아산 조방원(1926-2014)에게서 그림을 배웠고 “바른 마음이 손재주의 주인”임을 늘 새기며 연묵의 여가에 종종 그림을 그려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서예를 통해 깊어진 정신세계를 유화 형식으로 표현한 새로운 미술 장르를 이른바 ‘몽화



이돈홍 작 ‘천지’

(夢畵)라 이름 붙이며 선보이고 있다. 자연의 맑고 깨끗한 흐름을 마음의 기운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몽화는 그림인 듯 글씨인 듯 추상적이면서도 생동감이 화면에 가득하다. 동국진체를 완성한 원고 이광사와 추사 김정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학정체’를 일컫던 학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서예가로 ‘신동국진체’를 꿈꾸면서 현재 수많은 제자와 명필을 길러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 HNT 하나투어

## 하나팩

# 여행은 편안하게, 무안출발 해외여행

### 중국

**상해**

299,000원~

상해/항주/주가가 4일 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야경#중랑의 베니스 #주가가 뱃놀이

**상해/장가계**

1,2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천하제일명산 #일식미조여행

### 대만/동남아

**대만**

614,200원~

대만/지우펀/야류 3일 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목,금,일요일 3박 4일 수요일 2박 3일

#역거리,불거리가득

**방콕**

459,000원~

방콕/파타야 5일 6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요일 4박 6일

#코끼리트레킹 #발사지 #다이나믹 여행지

**다낭**

849,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 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

#4성급호텔 #두분강투어 #후에전통마을

### 일본

**기타큐슈**

490,000원~

기타큐슈/유후인/벳부 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00원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출발 2박 4일 #지옥온천 #캐널시티

**오사카**

790,000원~

오사카/교토/나라 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목,일요일 3박 4일 #사승굴 #말찬관광일정 #다양한 특식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 062)228-1199